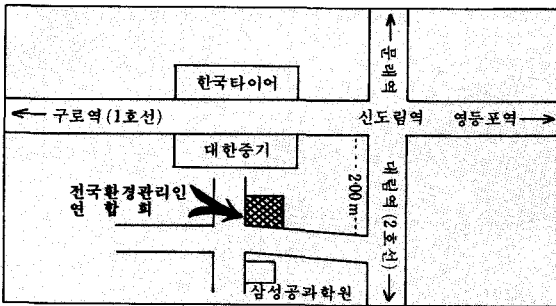


연합회사무실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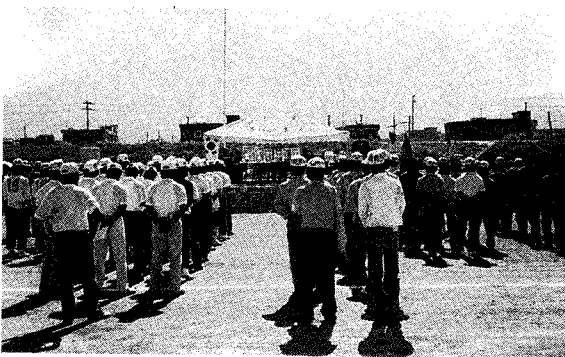
회원여러분의 성의있는 참여와 열띤 활동 가운데 본연합회는 급증하는 회원 및 업무의 확대에 업무의 원활과 편의를 위하여 6월 4일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였다.

본연합회는 앞으로 각 지역협의회와의 결속된 유대관계속에 환경관리인의 단합된 힘을 업계와 관심 있는 모든이들에게 더욱 새롭게 보여줄 것이다.

주소/서울 구로구 구로5동 41-15호 환경빌딩 2층
전화/862-2591, 868-5931(전과동)



친선체육대회 개최



본연합회 부산·경남협의회(회장·장준영)에서

는 지난 5월 28일 북구 낙동시민운동장에서 제1회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부산·경남 환경관리인들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며 관리인들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환경보전 업무향상을 위한 제2회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부산 1팀(북구, 진구, 동리구, 금정구, 해운대구)과, 부산 2팀(사하구, 영도구, 서구, 중구, 남구, 동구), 3팀에 마산, 4팀에 창원, 5팀(양산, 진주), 6팀에 후원회등 6개팀으로 약200명이 참석하여 축구, 배구, 씨름, 달리기 등의 경기를 통해 관리인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뜻있는 하루를 보냈다.

환경정화 캠페인 실시



인천협의회(회장·김봉석)는 지난 5월27일 약산에서 올림픽을 맞아 범 국민적 환경보전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서 인천직할시청 후원으로 '88환경 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정화캠페인에는 인천시청 환경관리계장을 비롯하여 약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사후에는 결과보고 및 평가회를 가졌다.

환경관리인 친선체육대회



여름을 느끼게하던 지난 5월15일 경기도 협의회(회장·이상호)는 안양공업고등학교에서 경기도 환경관리인들 상호간의 친선과 화합을 다지는 제2회 체육대회를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된 이날 체육대회에는 경기회원과 회원가족들, 신하철 국회의원, 관계기관 인사, 그리고 34개 협력업체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축구, 배구 족구 등의 경기를 통해 총우승은 황팀(안산, 반월)이 차지했는데, 회원간 우의를 다지는 정겨운 대회가 되었다.

환경관리 기술세미나

본연합회 전북협의회(회장·이기완)에서는 지난 5월 18일(수) 오전 10시부터 전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환경관리 기술세미나를 가졌다.

내용은 광주환경지청 양방철 지도과장의 「'88 하반기 지도점검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순서를 가졌고, 이어서 이양화학(주)의 박원우과장의 「화학적폐수처리에서 고분자 응집제의 사용방법 및 처리기술」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총회에서는 전반적인 모임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으며, 오후에는 인근 금산사에서 회원의 친목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관리인 세미나 개최



본연합회 경기서부협의회(회장·권영호)는 지난 5월 20일 부천 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장 및 관련업체장을 모시고 교육 및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약 150명의 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주)울산의 권용웅부장의 「전문기술인의 도금폐수처리 기술에 관한 문제점 및 처리방법」강연과 이에 따른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뒤를 이어 윤재룡(인천지검 공해담당) 검사는 「환경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관리인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관리인의 권익은 협의회를 통하여 옹호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경기도청 박한병계장, 김포군 권윤탁계장, 부천시청 관리계장 등이 지역환경정책 및 기타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이날의 모임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창근고문 해외방문

본회의 고문이시며 환경교육회 회장이신 박창근씨가 「세계환경인클럽」(가칭)의 조직을 위해 미국의 3개 도시와 노르웨이, 서독을 경유하여 약 3개월의 여정으로 지난 5월 11일 출국하였다.

올해초, 미국순회강연때에 세계 환경보호 운동가들로부터 세계환경인모임 발족을 권유받고, 이번에 그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구미를 순방하게 된 것이다.